

고흥 재생에너지 총량 10GW 시대…에너지 전환 돌입

군, 미래전략산업 재편…대표 조합원 1000명 구성 주민 주도·의견 수렴…‘군민 에너지연금’ 조속 실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총량 10GW 시대를 열고 ‘군민 대타협’을 통한 초대형 에너지 전환과 주민 상생 모델 구축에 돌입한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정부와 군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2GW 가운데 1.5GW는

제1차 예비지구 선정에 위한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이며, 군이 주도하는 1GW 영농형 태양광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규모 민간 태양광 개발 2GW는 발전허가를 받았거나 부지 확보가 완료된 단계다.

또 군민 1500여명이 발전허가를 받은 태양광 0.6GW는 계통 접속을 대기중이며, 송전선로가 고흥·여수 해역과 내륙을 경유하는 여수권역 공공해상풍력 3GW는 정부와 여수시가 단지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여수 민간해상풍력 1.6GW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권역에서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총량 10GW는 2030년 정부 목표 100GW의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표 20GW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초대형

재생에너지 개발지역이 바로 고흥임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기존 우주·드론·스마트팜의 3대 미래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더해 ‘3+1 미래전략산업’으로 재편하고, 이를 지역 경제를 살릴 효과로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군민 대타협’에 돌입해 지난 9월 해상풍력 양육지점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정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민이 송전선로 구

축의 사급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10월부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 마을총회에서 인구 50명당 1명을 추천받아 군이 주도하는 읍면 주민조합의 대표 조합원 1000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조합은 송전선로 구축과 이익공유 모델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송전선로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세계 최

초로 주민이 건의하는 345kV 송전선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력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송전선로 구축은 주민 수용성이 완벽히 확보된 지역을 우선해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며 “이번 군민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군이 약속한 ‘군민 에너지연금’도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정해진 시기보다 앞당겨져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가 최근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그동안의 군정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청

사순문 장흥군수 “새로운 장흥 만들겠다”

군, 언론인 소통 간담회…미래산업 육성 등 전략 제시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그동안의 군정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순문 군수는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언론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민선 9기 주요

성과와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군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민생안전지원금 지급, 국도23호선 대덕연지~장흥 순지 구간 4차로 확장사업 확정, 장평 봉림·용산 포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선정 등을 꼽았다.

특히 총사업비 3694억원이 투입되는 국도2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과 물류 이동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정 운영 방향과 장흥의 미래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군은 우선 ‘예산 1조원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해양·농생명산업 특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국·도비 등 외부재

원 확보를 확대하고, 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AI 농업 시스템 지원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사순문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지원금과 관련해 “통합지원금의 일부를 27개 시·군·군에 배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확보된 자원은 해양·농생명산업 특구 지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주요 시설과 입주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사진은 순훈호 순천시장이 현황을 보고 받는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순천시, 신청사 입주 준비상황 점검

19일 민원실 운영…시민 불편 최소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주요 시설과 입주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훈호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최근 신청사 현장을 찾아 실제 청사 운영과정에서 시민과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사전에 확인했다.

순훈호 순천시장은 입주 전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시민과 직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사는 19일부터 민원실 운영을 시작하며, 이후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해 11월 중순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총 10국 45부서, 186팀 868명과 의회사무국 73명이 입주한다. 업무효율을 위해 평생교육과와 맑은물관리센터는 각각 센터에 남아 업무를 이어간다.

시는 12월부터 현 청사 철거, 지하주차장과 중앙공원 조성, 신청사와 주변 시설을 연결하는 연결건축물 설치 공사 등을 본격 추진해 2027년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는 행정업무 공간이 넓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며 “시민과 직원 모두가 불편 없이 신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보성,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접수

28일까지 신청…고령·장애 농업인 등 우선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 농민상담소 또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파쇄 대상은 고춧대, 깻대, 파수 가지 등 부산물 등이다. 군은 이를 현장에서 잘게 파쇄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 위험과 대기오염을 줄일 계획이다.

군은 산림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고령 농업인, 장애 농업인, 여성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소규모 재배 농가와 일반 농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파쇄지원단은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선정된 농가를 차례대로 방문해 파쇄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비용은 무료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작업 전에 파쇄 장비가 농경지 안에서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영농부산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모아 두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해 비닐 끈, 철사, 쓰레기 등 이물질들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061-850-573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하면 화재를 예방하고,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효과도 있다”며 “농업인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여수섬박람회 누적 관람객 100만 돌파

공연·먹거리로 연휴 북적…행사장 ‘활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한달남짓 연휴 기간 25만여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공연과 수산물 할인전, 김밥 시식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13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에 25만여명이 방문했다. 지난달 5일 개막한 이후 36일 만인 지난 10일에는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날까지 집계된 관람객은 모두 106만4079명이다. 주행사장에서는 저녁마다 색다른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9일 열린 여수 재즈페스티벌은 가을 노을과 바다를 배경으로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했다.

부행사장인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도 축제 열기가 이어졌다. 지난 9일 개막한 ‘2026 전남광주 세계 김밥 & 소금 페스티벌’에는 이틀간 관람객

들이 방문해 주행사장과 함께 활기를 더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가나 볼타의 ‘아일랜드 프렌즈데이’ 공연과 김밥&소금 페스티벌 마지막 날 행사가 이어졌다.

조직위원회는 개막 초기 콘텐츠 보강과 무료입장 확대,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시민 참여 등이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기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재개장 이후 첫 연휴에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모두 관람객으로 북적였고, 누적 관람객 100만 명도 돌파했다”며 “폐막까지 남은 3주 동안 새롭게 단장한 전시관과 매주 주말 이어지는 공연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이 섬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과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



지난 10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는 전남광주 수산물 특별 할인전과 ‘세계 김밥 & 소금 페스티벌’ 연계 시식행사가 열려 먹거리를 찾는 관람객들로 광장이 북적였다.

사진제공=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광양,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550원

지역 여건·근로자 생활 안정 등 고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55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비롯해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지역경제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550원, 일급 9만2400원(8시간 기준), 월급 241만3950원(월 20시간 기준)이다. 시급 기준으로 2026년 생활임금 1만1020원보

다 530원(4.8%)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1400여명으로, 광양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